

전신연

JEON SHIN-YEON

몽유 夢遊 Daydreaming 꿈꾸는 비전

| 신서정 미술사학 박사, 미국 메릴랜드 대, 조지 메이슨 대 강사

미국 메릴랜드 주 그렌뷰 맨션 갤러리

Glenview Mansion Art Gallery, Rockville, Maryland

에서 2월 한 달간 도예가 전신연의 전시가 열렸다.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에서 배태된 스물 일곱 점의 작품들은 대부분 구체적이고 촉각적인 대상으로서의 인체 형상이다. 작품들의 소재도 인체 형상이고 그 틀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역시 인간에 집중하고 있다.

도예가로서 전신연의 인간을 향한 관심의 표출과 인체의 조소적 표현의 성과는 이미 2004년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렸던 솔로 쇼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전신연 솔로 쇼 《The Way of the Brush》,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 대사관 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 2004. 8.6~26. 필자

에 의한 전시리뷰는 월간도예 2004년 9월호 p.19 참조) 이번 작품들은 4년 전의 생략적이고 추상화된 인체의 모습에 비해 훨씬 세부적이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또한 '도자'라는 장르적 특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고민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인 시도가 돋보인다. 작품이 복잡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해보고 싶은 시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Who', 2006

인간의 얼굴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실물 크기인 여성의 두상들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듯하다. 문득 이야기를 걸고 싶을 뿐 아니라 옆에 가만히 서 있으면 많은 이야기를 해줄 것만 같다. 설혹 여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더라도 그 섬세하고 풍부한 얼굴 표정에서 심지어 다양한 이야기를 읽어낼 수도 있을 것만 같다.



2 'Beyond Memory', 2008



4 'Disturbed Woman', 2007

롭고 내밀한 마음을 표현한 일기같은 자화상 일 수도 있다. 공허한 듯한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이 역으로 은밀한 내면의 갈망을 아주 효과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동양에서 예술은 항상 진실과 사실의 객관적인 기록이라는 측면 외에도 예술가 자신의 사유와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매체로 간주되었다. 본인의 외모의 솔직하고 충실한 재현이 자화상이라면 그 내면의 갈등을 담아내는 것도 외형적인 것의 유사성과는 별개로 하나의 자아의 표현이요, 넓은 의미의 자화상이 된다.

‘저 너머(beyond)’라는 단어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비현실적이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데, 즉 현실이 아닌 과거에의 아련한 미련이거나 미래의 꿈꾸는 소망일 수도 있다. 현재 실재에서 느끼는 감정의 즉각적 반응, 그 너머의 것은 일종의 향수거나 갈망이거나 환상이지 않을까? 이는 바로 꿈꾸는, 몽유(夢遊) daydreaming의 얼굴이다.

어쩌면 다소 의도적인, 현실성이 부재된 모호하면서도 텅 빈 듯한 표정은 작가에게는 창조적 영감의 근원과도 맞닿아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아주 개인적인 내면의 표현은 그 표현 방법에 있어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상상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 공허한 얼굴은 비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으며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표정은 무엇이든지로 변할 수 있다.

『Beyond the Feeling』에서와 같이 작가의 두번째 두상 시리즈에서는 얼굴 형태나 그에 따른 표정이나 분위기 외의 여러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덧붙여졌다. 작은 얼굴들과 해골, 깨진 그릇 등 여인의 얼굴에 보태진 요소들로 두상은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사용된 색채도 다양해졌는데 차가운 푸른 계열의 색감은 이제 따뜻하면서 화려하고 밝은 노랑, 연두 빛 위주로 변했다. 빙 둘러가며 볼거리가 많아진 두상들은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풀어 가듯이

관객에게 들여다보는 재미를 준다.

그러나 모호한 표정과 반대로 또 다른 작은 얼굴과 함께 머리 위와 뒷면에 덧붙여진 죽음의 상징인 해골이나 구원의 마리아 상 등은 실은 쉽고도 친숙한 이미지들이다. 왜 누구나 아는 자명한 도상(iconography)을 빌려와 모호한 얼굴과 대비를 시킬까? 아이러니하게도 쉬운 이미지로 복잡하게 만들으로써 역으로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함인가?

이런 쉬운 도상들에의 관심은 이후 널리 알려진 상징적 이미지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소품의 작품 시리즈로 이어진다.(사진6, 7) 여기서는 작가의 주관적 표현성의 정도는 다소 열



7 'Life and Death', 2008

어지고, 작품 『Once upon a Time』이 ‘옛날 옛날에’로 시작되는 구전되는 이야기를 풀어 내듯 서사(narrative)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작품의 특성은 그 평범한 내용에 있다기보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매체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기술적인 표현방법의 시도에 있다. 복제 가능한 틀로 찍어낸 해골의 강경한 이미지와 그 옆의 녹아 흘러내리는 듯한 뭉개진 미완성의 얼굴의 대비는 시

간의 영속성과 동시에 시간의 한시성을 보여 준다.

형상과 비형상, 즉 추상의 대비는 『Wavy Woman I』과 『Wavy Woman II』에서도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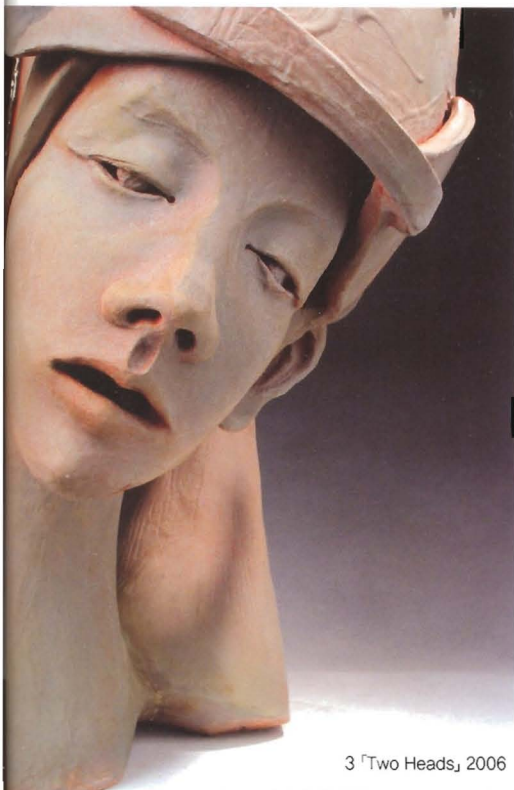
6 'Once upon a Tim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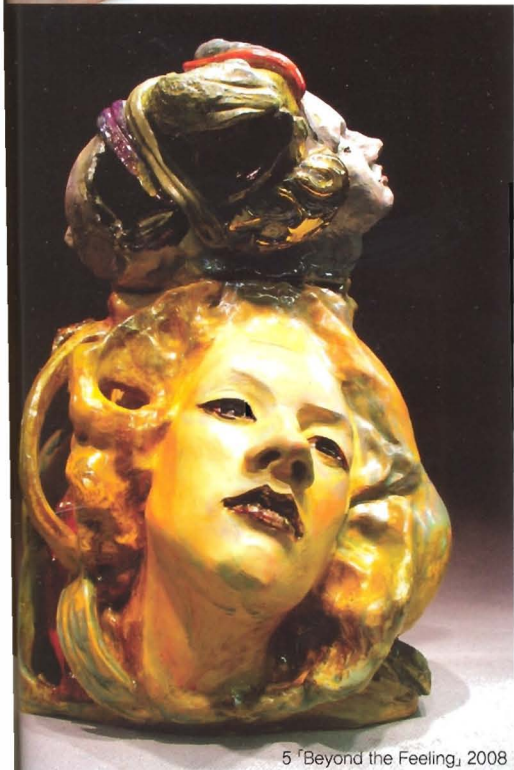
8 'Wavy Woman II', 2008

보여진다.(사진8,10) 이 작품들은 미켈란젤로 Michelangelo가 언급한 조각을 한다는 것은 돌 안에 갇힌 형상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고전적인 조각의 정의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EXHIBITION INFORMATION: SHINYEON JEON, <TRANSFORMATION>
 GLENVIEW MANSION ART GALLERY, ROCKVILLE, MARYLAND, FEB. 1-24, 2009



3 'Two Heads,' 2006



5 'Beyond the Feeling,' 2008

작품 「Who」에서 보이듯이 좁고 기다란 타원형의 얼굴과 가녀린 긴 목이 이루는 유려한 선에 의해 배가된 우아함은 매너리즘 Mannerism 작품 속의 여인들과 유사한 인상을 준다. 섬세한 얼굴은 두꺼운 천으로 티어번 같이 둘러싸여 있는데 푸른빛을 띠는 차가운 금속성의 색감과 천의 대범하고 거친 직감은 마치 매끈한 얼굴 주변의 두광(頭光)도 같이 여인의 이미지에 하나의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사진1)

제목 「Who」가 묻듯이, 이 여인들은 누구일까? 살아있는 걸까? 과연 따뜻한 피가 흐르는 걸까? 예민한 선에 의해 살아나는 날카로운 코끝과 진하지 않은 속 쌍꺼풀의 아몬드형 눈을 가진, 동서양의 모습이 혼재된 듯한 좁다란 얼굴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습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외모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표정 역시 친근하거나 다감하지는 않다.

여인의 얼굴은 실제 모델과의 작업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상상과 기억에 의해 창출된 하나의 이미지다. 여인은 얼굴은 인간이 가지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에 대한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보다는, 그 너머의 어떤 것을 갈구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여인의 얼굴은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그 어떤 것을 담고 있다. (사진2, 5) 그래서 아마 작가는 「Beyond Memory」와 같이 2008년 초의 두상 시리즈 작품들에 'Beyond(그 너머)'라는 제목을 붙였는지도 모르겠다. 작가가 의도했던 안했던, 저 건너편의 허공을 응시하는 모호한 얼굴 표정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얼굴들이 기억이나 감정 너머의 어떤 것을 담고 있다면 내면의 흔들리는 상태나 상상 속의 세계, 또는 무의식 속의 생각 등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

는지도 모른다.

이런 모호성이나 상반성. 외양과 내면의 불일치, 숨은 아니면 숨기는 내적인 혼란과 감정은 「Two Heads」에서처럼 다른 표정을 띤 두 얼굴이 마치 삼 쌍둥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했다.(사진3) 한 얼굴은 정적이고 안정되고 절제된 표정의 외면을 보여주는 반면 가우뚱 기울인 내면의 모습은 반쯤 감긴 꿈꾸는 듯한 눈에 무의식적으로 반쯤 열린 입으로 표현되었다.

여인의 고뇌는 「Disturbed Woman」에서 머리에 덧붙여지고 목에 주렁주렁 매달린 물건들에 의해 암시되어 있다.(사진4) 머리 끝부터 목으로 칭칭 휘감긴 이 무거워 보이는 원형 물체는 불가의 백팩 염주와 같이 인간이 지닌 원초적인 고뇌일 수도 있고 그녀가 생각하는 다양한 사고의 표현 일 수도 있다. 둥근 물건들은 접시나 그릇, 즉 도자기의 일부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의 모습은 도예가인 작가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작가가 부여한 「Disturbed Woman」이라는 제목과 달리 여인의 표정은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 차분해 보인다. 다소 매트한 갈색조의 얼굴은 광택있는 오렌지, 녹색, 푸른색, 보라색 계열의 접시들과 묘하게도 어울려 아주 세련된 느낌을 준다.

「Beyond the Feeling」에서와 같이 주위 사람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표정을 들여다보면 마치 남의 내밀한 어떤 부분을 엿본 것 같아 순간 움찔하게 된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여인을 어깨 너머 훑쳐보거나 무심히 펼쳐진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슬쩍 곁눈질 하는 것 같은... 꿈꾸는 듯한 표정의 여인은 작가의 아주 사사

역으로 이 작품은 견고한 얼굴의 이미지가 녹아내리는 부정형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혹은, 단단한 얼굴을 둘

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다. 얼굴을 감싸고 있는 부정형의 물결치는 흙덩이에 서 두손으로 흙을 쥐어 누르며 강약의 힘 조절을 하던 작가의 손끝을 느낄 수 있다. 아마 때론 형상 보다는 비형상에서 작가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지도 모른다.

로 찍힌 얼굴들의 표면에 각각 다른 붓터치를 더해 동일한 작품들을 구별화시켰다. 여기서 「Wavy Woman I」은 얼굴 이미지라기 보다는 바다 페인팅(Body painting)과도 같이 입체적인 캔버스가 되었다. 각각의 「Wavy Woman I」에 그려진 굵은 선을 이어보면 일필휘지(一筆揮之)로 그은 하나의 붓자국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Wavy Woman I」은 종속적인 부차적인 이미지가 되었다.

여기서 주된 이미지는 획 휘두른 붓놀림에 의해 창조된 리듬이다. 이 붓놀림은 화룡점정(畫龍點睛)처럼 갈색으로 죽어있는 여인의 얼굴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도 같다. 작가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동일한 이미지들에 다른 색감을 입히고 다른 붓 터치를 더해 「Transformation」 시리즈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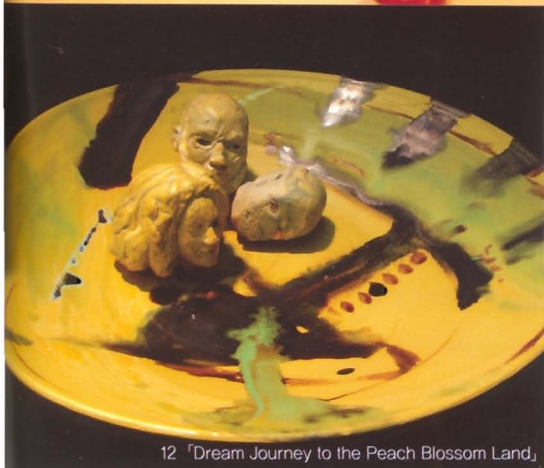
9 「Clay Sketches」, 2008



10 「Wavy Woman I」, 2008



11 「Transformation」, 2008



12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려싸고 있는 부정형의 머리와 목 부분은 역시 연속성을 지닌 형상화된 사실적 외적 이미지 내의 흔들리는 불안정한 내면과 함께 자유로

두상 시리즈 곳곳에서 감지되는 사실적인 얼굴과 대비된 추상적이거나 완성되지 않은 배경적 요소들이 내포하는 즉흥성에 대한 작가의 흥미는 또 다른 시리즈 「Clay Sketches」로 연결된다.(사진9) 도자를 만들 때 가마에서 구워내는 마지막 단계는 흙으로 빛은 작품에 영원성을 부여해 주는 과정과도 같다. 이에 반하여 크로키 같은 빠른 스케치는 순간을 영속화 해버리는, 활화산의 마그마가 만들어내는 화석과도 같다. 즉, 찰나의 멈춤은 그 거친 작품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력을 띠게 된다. Clay Sketches가 갖는 즉각성과 즉흥성은 예술가의 가장 본능적인, 어쩌면 창조적 영감이 반짝이는 그 순간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즉흥성의 또 다른 발현은 「Wavy Woman I」의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시킨 「Transformation」 시리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정형의 물결치는 배경에 기대있는 틀

들었다. 휘두른 한 붓터치는 반복된 외형을 바꿀 뿐 아니라 그 근본적인 성질과 기능조차 변형, 즉 transformation 시키고 있다. 작가의 최근 작품인 환경을 포함하는 environmental 얼굴들의 시리즈 중 하나는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이다.(사진13) 이 작품은 작가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어떤 입지에서 있는지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된다. 작품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접시로 나타내지는 '도자'의 바탕 안에 인물 두상으로 대표되는 '조각'적 요소를 올려놓고 이에 끝으로 '회화'적 붓터치를 더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작가가 일관적으로 추구해 왔던 도자, 조각, 회화의 접목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작가가 꿈꾸는 것은 도연명(陶淵明)이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읊은 복사꽃피는 이상향이다. 꿈꾸는 표정의 여인들과 겹쳐지는 작가의 몽유(daydreaming), 그녀는 여기 작품들 속에서 또 다른 비전(visions)을 꿈꾸고 있다. **도예**